

최근 5년간 서부경남 물리치료사의 동태 분석

진주 한일병원 물리치료실
라 기 용
대구대학교 재활과학대학 물리치료학과
권 혁 철

A Trend Analysis of Physical Therapists in West Kyoungnam Province in the Last 5 Years

Rha, Ki-Yong, P.T.

Dept. of Physical Therapy Hanil Hospital, Chinju

Kwon, Hyuk-Cheol, Ph.D., P.T, O.T

Dept. of Physical Therapy College of Rehabilitation Science, Taegu University

<Abstract>

The prim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analyse the increasing of physical therapists and general hospitals (Medical institution has been opened Dept. of Physical Therapy) in West Kyoungnam Provinces.

Second is the discussing about newly propulsed Dept. of Physical Therapy of college's foundation in West Kyoungnam area. Based on the research results, the following considerations and guidelines are presented.

1. It must be makes the course of education extended 6years(This is major deepen course) and to establish evening program in University for a physical therapists who have not bachelor's degree.
2. It must be legislation the Public Health Physical Therapist System.
3. It must be prepared the law for independent clinic managed by physical therapist.

I. 서 론

우리나라의 물리치료사 수는 1998년 4월 말 현재 13,301명(물협신보 115호 대한물리치료사협회 1998)으로 우리나라 인구를 4500만으로 가정했을 때, 10,000명 약 3명으로 이는 1994년 전체 물리치료사 9,111명에 인구 10,000명 당 2.2명이었을 때 보다 4년 동안 무려 46%의

증가를 보였다. 이러한 인구 대비 물리치료사 수는 김철용(1997)이 보고한 미국 1.9명(1975), 캐나다 1.33명(1976), 일본 0.73명(1989)과 비교할 때 우리나라 물리치료사는 수치상 포화상태임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배성수와 박래준(1998)은 현재 물리치료사를 양성하는 교육기관은 3년제 대학 22개교, 4년제 대학 7개교로

모두 29개교이며 졸업정원은 1,640명이라고 했다. 라기용 등(1998)은 향후 12년 후인 2010년에 가면 물리치료사 수는 138%가 늘어나 32,000명이 선에 이르게 되며, 물리치료(학)과를 개설 및 증원하려는 대학의 움직임으로 물리치료사의 면허인 수는 그 이상 될 것으로 예상했다. 권혁철(1996)은 9,924명의 전체 물리치료사들 중 57%인 5,736명이 취업률 하고 있다고 보고했는데, 근래에는 병원 경영의 위축으로 고용 감소와 도산으로 물리치료사의 실제적인 취업률은 이 보다 낮을 것으로 추측된다. 라기용 등(1998)은 대다수의 물리치료사들은 다른 직군의 근로자들 보다 낮은 임금과 과로에 시달리고 있으며, 이러한 사실로 인해 물리치료사들의 이직률이 높아지고 있다고 보고했다. 과연 물리치료사가 저임금과 높은 이직률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전문직 종사자라고 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며,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해를 거듭할수록 더 많이 배출되는 물리치료사들의 배출 문제는 인제든지 사회적인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적절한 인력 수급은 환자들에게 양질의 물리치료를 제공하는 요인이 될 수 있지만 현 기류에 편승하여 장래에 대한 무분별한 계획없이 과잉배출되는 인력은 취업난을 가중시키고 말 것이다. 이에 대하여 김철용(1997)은 전문대학의 신설 억제와 정원 동결을 주장하기도 했다.

본 연구는 서부경남지역 물리치료사의 인력수급에 관한 정책자료로서 유용하게 활용하기 위해 시도하였으며, 연구의 목적은 최근 5년 동안 서부경남지역의 지역별 인구와 병원 증가율(물리치료실이 개설되어 있는 의료기관)을 살펴보고, 장래가 불투명한 물리치료사들에 대한 적절한 배려없이, 이 지역을 비롯하여 몇 군데에서 일고 있는 무분별한 학과 개설에 이의를 제기하고자 한다.

II. 조사방법 및 연구의 한계

본 연구자는 연구의 자료를 구하기 위해 서부경남 각 시·군 통계계에 전화를 걸어 1994년 12월 인구와 1998년 4월 인구 동향을 조사하였다. 그런 다음 사단법인 대한물리치료사협회 경남도회 서부지부 사무국에 비치된 1994년과 1998년 회원 명단, 근무처와 전·출입 상황을 파악하였다.

본 연구의 한계는 조사지역을 본 연구자가 속해있는 지역과 물리치료사들에게만 한정시킴으로 인해, 기타 다른 지역과 모순될 수 있으며, 지역적인 특수성으로 인해

Table 1. 전국 물리치료(학)과 설치 대학 현황
(1998년 7월 말 현재)

지역	대학(교)
서울	고려대학교병설보건대학, 삼육대학교
부산	지산대학
대구	대구대학교, 대구보건대학
대전	대전보건대학
광주	광주보건대학
경기	동남보건대학, 서울보건대학, 신구대학, 안산대학, 여주대학, 용인대학교
강원	연세대학교, 영동대학
충남	신성대학, 한서대학교
충북	대원대학, 극동대학, 청주대학
경남	마산대학
경북	김천보건대학, 안동과학대학
전남	목포대학, 전남대학, 한려대학교
전북	서남대학교, 원광보건대학
제주	한라대학
계	29개 대학(교)

지부에 취업 신고를 하지 않고 취업해 있는 물리치료사와 고용한 의료기관은 포함시키지 않았다.

III. 물리치료학과 설치 대학 현황

현재 우리 나라에서 물리치료사를 양성하는 교육기관은 3년제 대학 22개교, 4년제 대학 7개교로 모두 29개교이며 졸업 정원은 1,640명이라고 언급했듯이, 지역에 따른 편중 현상도 있지만 비교적 고르게 분포하고 있다 (Table 1). 1963년 지금의 고려대학교보건전문대학의 전신인 수도의과대학 병설 의학기술 초급학교에서 출발하여 35년을 성장해오면서 1990년대 들어서만 14개 대학(교)에 물리치료학과가 설치되어 물리치료사의 저변 확대에 기여했다. 대학이 늘어나면서 동시에 학회의 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졌으며, 오랜 임상 경험과 함께 학위를 취득한 물리치료사들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주었다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가 하면, 갑자기 늘어나기 시작한 졸업생들로 인해 취업률이 낮아지고, 재취업은 거의 힘들게 되었다는 역기능을 초래했으며, 문제의 심각성은 앞으로도 전국의 여러 지역에서 물리치료(학)과를 개설하려는 움직임이 있다는 데 있다. 일부에서는 임상에 있는 물리치료사들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고, 무조건 졸업과 함께 면허를 주어 취업하지 못한 물리치료사들이 사회 문제를 일으키도록 유도하는 듯한 기류가 있는데,

Table 2. 서부경남지역 인구 및 PT동향

지역	인구 및 PT동향	인구 동향	증 감	PT 동향	증 감
거창군		74,999 (72,785)	↓ 2,214 (2.95%)	8 (8)	=
남해군		70,199 (64,500)	↓ 5,699 (8.1%)	4 (6)	↑ 2
사천시		122,759 (120,533)	↓ 2,226 (1.8%)	7 (10)	↑ 3
산청군		47,262 (43,878)	↓ 3,384 (7.16%)	2 (5)	↑ 3
진주시		334,196 (339,904)	↑ 5,708 (1.52%)	22 (45)	↑ 23
하동군		65,766 (62,494)	↓ 3,272 (4.98%)	3 (4)	↑ 1
합양군		52,426 (48,792)	↓ 3,634 (6.93%)	3 (7)	↑ 4
합천군		71,953 (65,827)	↓ 6,126 (8.51%)	5 (10)	↑ 5
계		839,560 (813,005)	↓ 26,555 (3.16%)	54 (95)	↑ 41

(자료제공 : 대한물리치료사협회 경남도회 서부지부 사무국 및 서부경남 각 시·군 통계계)
 * 인구동향 ()는 1998년도 4월 말 기준, PT동향 ()는 1998년 7월 말 현재

개고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안타까운 것은 중앙회의 파행으로 회원 관리가 명확하게 이루어지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정확한 취업률이나 실업률이 집계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며, 각 학교에서 내어놓는 취업률은 대부분 졸업생들을 포함시키지 않은 것으로 정확한 자료가 되지 못한다는 것이다.

IV. 서부경남지역의 인구와 물리치료사 분포

서부경남지역은 광범위하여 진주를 중심으로 흩어져 있다. 증환자가 발생하면 종합병원들이 대부분 진주에 밀집해 있음으로 진주를 거쳐 부산이나 서울로 이동한다. 인구는 1994년 12월말에 10개 시·군에 839,560명이었으며, 4년이 지난 1998년 4월 말 현재 시·군 통합으로 진주시와 진양군이 진주시로, 사천군과 삼천포시가 사천시로 통합되어 8개 시·군 813,005명으로 조사되었다. 이것은 1994년에 비해 3.16%인 26,555명이 감소된 수치이다. 인구 대비 가장 많이 감소된 지역은 합천군으로 8.51%가 줄었고, 그 다음은 남해군으로 8.1% 순이었다. 유일하게 인구가 늘어난 지역은 진주시로 1.52%인 5078명이 증가했지만, 외지에서 -서울, 부산 등- 대학을 다니고 있는 학생들의 주소지가 옮겨지지 않았다는 것을 감안하면 진주시의 실제적인 인구 증가는 거의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이에 반하여 1994년 서부경남지역에 54명이 근무했던 물리치료사 수가 1998년 7월 말 현재 95명으로 4년 동안 41명이 늘어나 그 증가율은 76%로 집계되었다. 지역적으로는 진주시가 23명이 늘어난 104.5%로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정리하면 1994년에는

물리치료사 1인당 15547.4명의 환자를 진료했는데, 1998년 현재에는 8557.9명으로 6989.5명이 줄어들었다. (우리나라 물리치료사 1인 대비 환자 수 = 약 1 : 3458.4명, 인구 10000명 당 약 3명) 이것을 인구 10000명 당 비율을 지역 별로 살펴보면 거창군 1.1명, 남해군 0.93명, 사천시 0.83명, 산청군 1.14명, 진주시 1.32명, 하동군 0.64명, 합양군 1.44명, 합천군 1.52명, 서부경남 전체로는 1.17명이었다. 이러한 결과로 미루어보아 서부경남지역의 물리치료사 수는 선진국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따라서 서부경남지역의 8개 시·군의 현재 인구 대비 물리치료사 수는 비록 인구의 감소가 현저하게 나타나기는 하지만 남해군, 사천시, 하동군 등에서는 물리치료사가 부족한 것으로 보이기 는 하나 전체적으로는 적정수준을 유지하고 있었다. 그러나 현 상태에서 이 지역 내에 있는 대학에 물리치료(학)과가 생겨 졸업생이 배출된다면 이 지역 의료기관 중 62.12%가 개인의 원인데 열악한 여건 속에 근무하는 물리치료사들의 고용불안은 더욱 가중될 것이며, 자연적으로 높은 이직률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V. 서부경남지역의 물리치료 요양기관 분포

사단법인 대한물리치료사협회 경남도회 서부지부에 등록된 물리치료사들이 근무하는 서부경남지역 의료기관은 1998년 7월 말 현재 병원급 이상 24.2%, 개인의원 57.6%, 보건소 13.7%로 조사되었다. 1994년과 비교하여, 병원은 14.3%, 개인의원은 100%, 보건소는 28.6% 증가했으며, 전체적으로는 약 54%의 의료기관이 증가한 것

Table 3. 지역별 의료기관 분포

()는 1998년도 7월 말 현재로 *는 임시직임

지역	의료기관	병원급 이상	개인의원	보건소	한의원	기 타	계
거창군		2 (2)	3 (5)	1 (1)	*	*	6 (8)
남해군		1 (1)	2 (3)	(1)	*	*	3 (5)
사천시		2 (1)	2 (3)	2 (2)*	(1)	*	6 (7)
산청군		(1)	(1)	1 (1)	*	1 (1)	2 (4)
진주시		8 (9)	5 (14)	(1)	1	1	15 (24)
하동군		*	2 (3)	1 (1)	*	*	3 (4)
함양군		(1)	2 (5)	1 (1)	*	*	3 (7)
합천군		1 (1)	3 (4)	1 (1)	*	(1)	5 (7)
계		14 (16)	19 (38)	7 (9)	1 (1)	2 (2)	43 (66)

(자료제공 : 대한물리치료사협회 경남도회 서부지부 사무국 및 서부경남 각 시·군 통계계)

으로 나타났다. 이미 언급했듯이 진주를 비롯한 서부경남지역의 인구는 감소 추세에 있는데 비해 이처럼 상식을 초월한 병원증가율은 병·의원간의 과도한 경쟁을 유발하여 결국 휴·폐업을 하는 곳이 늘어날 것이고, 경력이 있는 물리치료사들의 재취업이 어렵다고 했을 때 이에 따른 물리치료사들의 실업은 우려되는 부분이다. 특히 물리치료사들은 다른 보건계열의 의료기사들 보다 의료계 진출에서 볼 때 진로가 한정되어 있다는 약점을 가지고 있다. 물리치료사들은 거의 대부분 외과 영역의 진료과가 설치된 곳에서만 근무를 하는데 반해 임상병리사, 방사선사들은 이 영역외에 내과 영역에서도 근무할 수 있다고 했을 때, 상대적으로 물리치료사들의 진로는 제한되어 있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국민 소득이 증가하고 인구가 노령화되어 가는 추세에서 미래에는 물리치료사들의 영역이 넓어진다고 하지만, 물리치료사의 사회적 인 지위가 보장되지 않는 한 의미 없는 일이 될 것이다. 일반 근로자(봉급 생활자)들은 해가 바뀌면 호봉제제라도 있어서 장기 근속자와 신입간에 구별이라도 있고, 의사, 변호사, 회계사 등 소위 전문직 종사자들에게는 개업권이 보장됨으로 안정적인 생활을 보장받지만, 현재의 물리치료사들은 그 어느 쪽도 해당 사항이 없는 형편에 공급만 가속시킨다면 공멸의 길을 걷고 말 것이다. 이러한 주장이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개인 이기주의라고 치부하기 전에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에 신중을 가해야 할 것이다.

VI. 고 찰

대한외사협회에 따르면 올해 전문의 시험에 합격한 3046명 가운데 개원하거나 병·의원에 취업하지 못한 사

람은 2028명, 자신의 거취를 의협에 신고하지 않은 37명을 미취업자로 포함시킬 경우 취업률은 31%에 불과하다고 발표했다. 대한간호협회 역시 예년에 95%의 취업률을 보였으나 올해 실제 취업률은 68%로 집계했다. (1998년 7월 10일 중앙일보 41판 사회면) 이와같이 근래에 보기도 못한 의료인력의 낮은 취업률은 IMF의 영향으로 경기 불황이 계속되고 있는 결과라고 하겠으나, 실제로는 예전되었던 일이 현실로 나타났다는데 주목해야 한다. 대한의학협회에서는 의사들의 과잉배출 현상 때문에 의과대학의 신설을 억제하고, 정원과 국가고시를 엄격하게 관리하는 등의 로비활동을 공공연하게 해왔던 것이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에는 상상도 못했던 의사들의 실업사태가 부상되었다는 것은 물리치료사들 역시 예외일 수 없다는 것이다. 어쩌면 물리치료사들은 지역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겠지만 이미 나타났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서부 경남지역에는 1994년 말 10개 시·군에서 54명의 물리치료사가 근무했으나, 1998년 7월 현재 시·군 통합으로 8개 시·군에 95명의 물리치료사가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4년 동안 41명의 물리치료사가 늘어난 것으로 증가율은 약 76%로, 전체의 46%보다도 오히려 30%가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단순히 외관상으로 볼 때는 고용 창출이 높은 지역으로 간주될 수 있겠지만, 지역별로의 인구 분포와 병원 형태 등을 고려하면 포화상태로 여겨진다. 실제로 서부경남의 중심지라고 할 수 있는 진주시에 1994년 물리치료실이 개설되었던 병원은 병원급 8군데, 개인의원 5군데로 물리치료사 수는 22명이었다. 그러나 4년이 지난 1998년 7월 말 현재 병원 급은 9군데, 개인의원 15군데로(보건소 포함) 팽창했으며, 이에 따라 물리치료사 수도 45명으로 두 배 이상

증가했다. 1994년 12월 말 진주시. 진양군 인구가 334,196명이었고, 현재 통합 진주시 인구는 1998년 4월 말 현재 339,904명으로 4년 동안 5,708명이 늘어 증가율은 1.52%였다. 이러한 사실로 말미암아 물리치료사 및 물리치료 요양기관 증가율이 진주 지역의 인구 증가율을 앞질렀음이 조사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자는 서부경남지역을 비롯하여 물리치료학과를 신설하거나 정원을 증원시키고자 하는 계획들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하며, 이러한 제언들은 물리치료계의 발전과 국민보건향상을 위해서 책임 있는 사람들이 모여 공청회 등을 통해 반드시 정책적인 반영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첫째, 물리치료사들의 사회적 인식이나 지위를 격상시키기 위해서는 전문대학의 설립을 제한하고, 기존의 대학을 정규대학으로 개편하는 한편, 학제를 6년으로 하여 전공심화과정을 만들어야 한다. 그리고 학위가 없는 졸업생들에 대해서 정규대학에 야간 강좌를 개설하여 방송대학이나, 산업대, 기타 대학에서 비전공학위를 받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둘째, 공중보건물리치료사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서부경남지역과 같이 지역은 넓고, 병원이 없어서 도시로 치료를 받으러 나오는 사람들을 위해 보건소나 보건지소 시설을 활용하여 물리치료사들을 상주시킴으로 환자들에게는 시간과 비용의 절약을, 물리치료사들에게는 사회적인 위상 정립과 졸업후 학문의 연속성이 부여될 것이다. 셋째, 1일 환자 수를 15명이 하로 줄일 수 있는 법적 인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현재 임상에 있는 물리치료사들이 치료하는 환자 수는 많은 사람들이 지적했듯이 비현실적이다. 학회나 학교에서 배웠던 지식을 충분히 활용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시간이 지나면서 아는것도 잊어버리고 있는 현실을 협회 차원에서 부각시켜야 한다. 이렇게 된다면 국민들은 양질의 물리치료를 제공받을 수 있을 것이며, 물리치료사들의 고용은 현재의 두 배 이상 가능해질 것이다. 넷째, 물리치료사들에게 면허 취득 후 대부분 의료기관에 취업하게 되는 일반적인 것에서 탈피하여 대학의 교과과정에 재활상담사나, 사회복지사 과정을 이수시켜 재활원이나 복지관, 시·군·구청 등에서 장애인 관련 상담이나, 행정 업무를 볼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다섯째, 물리치료사들의 숙원인 개업권의 확보이다. 개업은 물리치료사들이 사회에서 입지를 굳히며, 압력단체로 자리하는 길이요, 실업의 두려움에서 해방되는 길임으로 반드시 이루어야 할 물리치료계 최대의 지상과제이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지금 현재의 상황으로는 개업이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개업권은 위에서 제시한 네가지의 제언들이 정책적으로 수용되어질 때, 순리에 의해 얻어지는 것이지, 막연하게 국민서명운동이나, 법률적인 조항을 앞세운 인위적인 방법만으로는 한 세대가 흘러도 얻어지지 않을 것이다.

VII. 결 론

「최근 5년간 서부경남지역 물리치료사의 동태 분석」에 관한 조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서부경남지역의 인구증가율은 1994년 12월 말 보다 1998년 4월 말 현재, 26,555명이 감소 했고, 감소율은 3.16%였다. 유일하게 인구가 증가한 지역은 진주시로 1.52% 증가율을 기록했다.

2. 서부경남지역의 병·의원 증가율은 1994년 12월 말 보다 1998년 7월 말 현재, 병원은 14.3%, 개인의원은 100%, 보건소는 28.6% 증가했으며, 전체적으로는 약 54%의 의료기관이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3. 서부경남지역의 물리치료사 증가율은 1994년 12월 말, 54명이었으나, 1998년 7월 말 현재 95명으로 4년 동안 41명이 늘어나 그 증가율은 76%였다. 지역적으로는 진주시가 23명이 늘어난 104.5%였으며, 실질적으로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4. 우리나라 인구 10000명 당 물리치료사 수가 약 3명이라고 할 때, 서부경남지역은 1.2명이었으며, 다른 선진국과 비교할 때, 서부경남지역은 적정수를 유지하고 있었다.

따라서, 진주시를 비롯한 서부경남 전체의 인구 증가는 감소한데 반해 병·의원의 증가율이 훨씬 두드러짐으로 앞으로 서부경남지역내의 병의원간의 출혈 경쟁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되며, 상대적으로 물리치료사들의 고용 불안이 가중될 것으로 생각한다. 그러므로 물리치료사들에 대한 전반적인 사회적 인식 개선과 제도적인 기반이 형성되지 않는 상황에서의 학과 신설은 현재 임상에 있는 물리치료사들을 위축시키고 나아가 이직을 부추기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생각한다. 비록 경남 지역에 물리치료사를 양성하는 대학이 1개교로 다른 지역 보다 적다고는 하나 대학의 설립은 지양되어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1. 권혁철 : 우리나라 의료 재할 전문인력 수요, 공급 및 추계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인제대학교대학원, 1996
2. 김철용 : 물리치료의 발전 과제와 전망 대한물리치료사학회지 Vol. 4, No. 2, 1997
3. 라기용, 오영택, 문항미, 배성수, 전재균 : 한국 물리치료사들의 근무 현황 조사, 대한물리치료학회지 Vol. 10, No. 1, 1998
4. 배성수, 박태준 : 한국물리치료의 현황과 진로 대한물리치료학회지 Vol. 10, No. 1, 1998
5. 대한물리치료사협회 경남도회 서부지부 : 회원 전. 출입 현황 1998
6. 서부경남 시·군 통계계 : 인구 현황 1998
7. 중앙일보사 : 사회면 올해의 전문의 취업 현황 pp. 41 1998